

서방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 시장 진출 전략

KOTRA 충청권 지원단장
한 선 희
[前 중동지역 본부장]

CONTENTS

- I 이란 시장 상황
- II 이란시장 진출 준비상황
- III 이란 수출 8대 유망품목
- IV 이란시장 진출전략

① 이란 시장 상황

이란 분위기

- ◆ '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경제 고립으로 서방세계에 대한 견제 의식
 - 위대한 타협, 저항경제 승리 등 대외적인 자신감
 - 실제적으로는 저항경제의 높은 피로감 및 두바이·인접국 밀무역으로 생존
 - 청년층은 서구사회 및 문화동경

경제상황

- ◆ 서방세계의 경제제재와 저유가로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
 - 1,070억불 대외동결자산 활용 및 5개국 현지화 계정 자산 활용 방침
- ◆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확보 위해 급속한 원유 증산 최우선 추진
- ◆ 카타르와 공유하고 있는 South Par 가스전 개발 최우선 추진

경제정책

- ◆ 석유화학산업, 전력산업, 철강산업 등 국가기간산업 집중 육성
- ◆ 경제개발자금 확보 및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 지속추진
- ◆ 경제제재 해제 이후 수입급증 방지를 위해 안정적 리알화 유지 예상

① 이란 시장 상황

산업 및 무역정책

- ◆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및 국산화 정책 추진
 - 저항경제하에 품질수준은 낮으나 상당부분 국산화
- ◆ WTO 미가입국으로 자의적인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 시행
 - 높은 가공도별 세율격차(Tariff Escalation)
 - 수입대체 가능 시, 관세율 임의인상 및 수입규제 시행 등 불확실성
- ◆ 외환부족으로 국제금융시스템 복구 후에도 외환통제 예상

한국에 대한 이미지

- ◆ 드라마 한류로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 및 유대감
 - 대장금, 주몽 시청률 85% 이상
- ◆ Korea Premium 존재, 서방경제제재 해제 이후 유럽 대체로 한국에 높은 관심
- ◆ 미국의 대 이란정책에 너무 동조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 (항상 중국과 대비)

② 이란시장 진출 준비상황

프로젝트 수주추진

- ◆ 한국수출입은행, 이란정부 보증 프로젝트에 최우선 Project Financing 제공 방침
- ◆ 석유화학, 정유, 항만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EPC 기업 참여 추진 중
 - 이란 시장잠재력은 크지만 자금부족으로 Financing이 프로젝트 수주에 최대 관건
- ◆ PF에서 유럽, 중국, 일본 등 경쟁국에 크게 밀리는 상황

한-이란 합작투자

- ◆ Snapback risk 및 과실송금문제로 한국 P사를 제외한 현지 합작투자 검토미진
 - 기 투자 진출한 K사도 수익금 현지 보유 중

민영화 계획 참여

- ◆ 통신, 자동차, 담배 등 제재해제 이후 주요 민영화 계획 참여 추진
 - 공동 인수 후 한국형 시스템으로 up-grade 후 이란시장 석권 및 제3국 추진
 - 적절한 시점에 소수 지분 매각 후 철수
- ※ 무역관을 통해서 이란 정부 민영화 계획(안) 입수 추진 중

② 이란시장 진출 준비상황

산업협력 추진

- ◆ 이란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완제품보다는 OEM생산이 유리
 - 한국 D사와 이란 H사 간의 중장비 딜러계약 및 OEM 생산체제 구축 합의
 - 이란 국영자동차 S사, 한국 K자동차의 OEM 협력확대 희망(민간자동차 A사도 OEM생산 희망)
 - 한국 A사와 이란B사의 전략적 제휴에 의한 노후발전소 개·보수 프로젝트 수주 추진 등
 - 한국 S사의 윤활유 Mixing Plant 합작투자 추진 가능성 검토
- ※ 이란 H사 부사장, 한국기업과 OEM 생산 협력 타결 시 생산기종에 대해 관세인상 또는 수입규제 이란정부에 건의 언급

이란의 고관세 및 Tariff escalation을 활용한 현지조립생산

- ATM 생산기업 K사
- 이란 B社와 ATM 모듈부품(8천대) 납품계약 체결(8천만 달러 상당)
- 1차년도 1,500대 수출, 2차년도 2,500대 및 3차년도 4,000대 SKD 수출 예정
- ATM 완성품 관세율 25%, 부분품 관세율 5% 인 점에 착안, 현지 조립생산 추진
- '14.11월 SKD 방식으로 이란 최초의 ATM 공장 설립
- K社에서 직원 10명 파견, 기술지원 'PEBCO컴넷' 공동 브랜드로 마케팅
- 이란 ATM 시장규모는 연간 6,500대 수준이며 현재 3만대 보급(시장기회 多大)
- 중앙아시아(투르크메니스탄, 아르메니아 등), 이집트 재수출 추진

② 이란시장 진출 준비상황

서방글로벌 기업의 시장공백을 활용한 수출확대

- 면도기 제조업체 D社
- 경제제재로 Gillette, Shick 등 글로벌 브랜드 진입이 어려워진 이란 틈새시장 공략
- 2013. 8월 D社와 현지 에이전시 A社는 인지도상승을 목표를 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위성TV, 광고판 등을 통한 제품 홍보 지속
- 인지도 상승의 결과로 2013년 생활 의약품 전문 유통매장에 1,500만 달러 수출하고 향후 3년간 8천만 달러의 제품을 공급하는 MOU 체결, 연간 2,000만 이상 수출

현지 재래시장 상권을 활용한 시장진출 확대

- 한국 밀폐용기 업체 G사
 - 이란 주방기기 전문업체 M사에 2012년부터 수출, 2015년 150만 달러 수출
 -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M사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테헤란 및 지방상권 집중공략
 - 중국, 이란시장 보다 우월한 품질력으로 소비자의 구매욕 자극
- ※ 한국 화장품업체도 한류를 활용한 유통망 진출 추진 중

한국 유통체인 진출 미진

- 영국 Tesco 등 선진 유통체인점들도 이란 시장 진출 추진 중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차원에서 한국 유통체인들의 이란 on- off 유통시장 진출 검토 필요

③ 진출유망 품목

보건의료

-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노후화로 막대한 대체 수요
- 의약품 부족 및 낙후 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의료산업 현대화 사업추진

전력기자재

- 발전설비 노후화로 기존 발전소 개,보수 프로젝트 유망
-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예상
- National Grid 미연결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

산업기계

- 제조업육성 정책으로 생산설비, 기계류 수입 장려
-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민간기업 생산능력 확충 본격추진 예상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

- 한국 자동차에 대한 프리미엄 존재
- 이란 자동차 생산기업의 조립생산 확대로 OEM 수출 수요 증대
- 차량 노후화로 A/S 부품 수요 확대

③ 진출유망 품목

조선

- 체제해제로 이란 LNG 운반 선박 80척(150억 달러)
- 원유 수송선박 10척(10억 달러), F-LNG(2억 달러) 발주 예상

철강

- 이란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한 한국산 자동차 강판 수요 증가 예상
-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수요 확대 예상
- 제재해제로 철강수요 자급을 위한 생산설비 증설 프로젝트 적극 추진 예상

석유화학

- 정부의 최우선 육성 산업군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산업규모 확대 예상
- 현지 석유정제 기술 낙후 및 기계설비 노후화로 당분간 수입 의존 지속 예상

ICT

- 인터넷, 투자 인프라 확대에 따라 관련 장비 수요 증대
-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IT 장비/ 시스템 등에 대한 높은 관심



④ 시장진출전략 (PERSIA)

- ◆ **Preparation for Market Entry** : 철저한 사전준비
- ◆ **Establishing Network** : 네트워크 구축/ 파트너 발굴
- ◆ **Risk Management** : 위험 관리
- ◆ **Strategic Alliance** : 전략적 제휴
- ◆ **Improving the Image** : 이미지 활용 및 제고
- ◆ **Adaptation to Local Market** : 현지시장 적응

Global Business Platform

